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양 승 민*

연세대학교

연 문 회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결혼이민여성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이천의 결혼이민여성 3명과 배우자, 가족, 총 9명을 참여자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글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경험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공통 주제영역에 따라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이 지각하는 적응상의 문제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정체감과 위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로, 관계설정에서의 스트레스에 해당하였다. 셋째, 적응상의 문제에 대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반응은 저항하기, 수용하기, 환경개선을 요구하기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형태였으며, 적응을 아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문화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현장중심으로 탐색한 귀납적 연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연구와 실제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반응, 질적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양승민(2008)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를 일부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 : 양승민,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3515, E-mail : yregina0926@gmail.com

한국 사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 대비 11%였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은 28,163건이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국제결혼 비율이 38.3%나 된다(통계청, 2009년 3월 기준).

전혜정 외(2008)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총 44,258명이며, 13,445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7년 4월 기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배경과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 다문화가정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의 당면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통시설 부족과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시지역의 일부 고학력 결혼이민여성들에 비해 가사와 농사일 돕기 등 다양한 임무가 주어진다.

최근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관 차원의 지원과 연구가 앞 다투어 시작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관련 예산이 100억 원에 이른다¹⁾. 그밖에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들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부적응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활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적응 과정을 입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경험적 접근은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이주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은 관계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의 영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남편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비인간적인 대우, 사회적 편견과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등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강성혜, 2007; 강유진, 1999; 성지혜, 1996; 신경희, 양성은, 2006; 신란희, 2005;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윤형숙, 2004; 이해경, 2005; 임경혜, 2004; 홍기혜, 2000)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확인되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1) 이는 결혼이민여성 지원의 주무 부서였던 여성가족부에서 확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사업의 주체는 여성부(정부조직 개편 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정부조직 개편 후)로 바뀌었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이제 막 시도되는 단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형식 역시 이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으며, 한국의 생활과 언어, 문화에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 경험은 어떠한지,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사례를 통해 알려진 문제와 일반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개별사례의 일상적인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에 대해 설동훈 외(2006)는 국가간 노동이주에서 결혼이주가 부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면서 이들 여성들이 남편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이주자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이민자들이 부양가족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머무르며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Brettell, 2000; Kanaiaupuni, 2000; Lewellen, 2002)과 일치한다. 최근의 국외 연구들에서는 국제결혼 현상과 결혼이민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Piper와 Roces(2003)는 결혼이민여성의 다면적인 역할과 정체성에 주목함으로써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하였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연구한 Simons(2001)는 서양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들은 국제결혼의 어려운 도전을 감당할 만큼 확고한 자율성, 결단력, 주도성을 지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모험가, 위험감수자의 특성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심리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Samonte(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부인 결혼이민여성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타협해나가는 모습을 강조한 연구(Lan, 2003; Yeoh & Huang, 1998)도 있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권력 관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한된 기회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Kelsky, 2001; Constable, 2003, 2005; Lan, 2003; Freeman, 2005), 그러한 기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마련되는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여성 대부분은 자국의 가족들에게 떠밀려 가족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이주의 주된 이유로 파악한 기존의 관점 역시 다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문제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결단이 없었다면 이주를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삶의 주체로서의 선택과 적응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민정 외(2006)와 이현선(2007)의 연구는 문제 상황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선택의 주체로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한 첫 시도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경제적 희생양 혹은 수동적 관찰자로서의 모습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의 주체로서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성사 단계부터 불평등한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관계에서 가족 내 상호작용과 부부간 권

력역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서로의 기대 차이 혹은 부부간의 기대 차이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함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혹은 관계 인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국제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당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력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각종 지원활동은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과 정착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그들과 다음 세대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상담적 개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화려한 구호를 앞세워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성 관련 근본 문제들을 냉정하고 정확한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김인희, 2008).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역시 실태조사나 기획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학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 적응을 위한 노력을 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였다. 결혼

이민여성들의 기대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와 위치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을 능동적인 선택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지금까지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되어 왔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과 개입방향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반응, 가족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원적 접근이 마련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과 상담적 개입은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적응과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보기, 현상 혹은 사회적 단위에 대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으로(Merriam, 1988), 어떻게, 혹은 왜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연구자가 상황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연구의 초점이 실생활의 맥락과 관련된 현재 현상일 때 선호되는 방법이다(Yin, 2003). 특히 실험이나 사회조사와 대조되는 방법으로, 소수 또는 단일 사례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탐구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Gomm, Hammersley, & Foster, 2000),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례들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연구하는 표본연구와는

다르다(Stake, 1995). 이처럼 사례연구의 본래 목적이 특수화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적응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해의 정교화에는 도움이 되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사례선정 시 연구 참여자의 접근 가능성과 호의적인 태도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민여성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의 적용이 가능한가?

- 결혼이민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대한 반응, 가족 내·외부 체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결혼이민여성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에 결혼이민여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적응과정에서 배우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00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3명과 그 가족들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 전 국적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고, 그 중 1명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다른 2명은 귀화신청을 진행 중이다. 연령은 23세 이상 34세 이

하로 20대 2명, 30대 1명이며, 입국 연도는 각각 2004년 3월, 12월, 2월로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이었다. 배우자들의 연령은 37세 이상 40세 이하로 30대 2명, 40대 1명이었고, 아내와의 연령 차이는 평균 12세였다. 각 가정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월령은 각각 28개월, 24개월, 19개월이었다(2007년 8월 기준).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 중 2명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동일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무교였다가 결혼 후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1명, 힌두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경우가 1명, 결혼 전후 모두 무교인 경우가 1명이며, 배우자들의 종교는 각각 기독교, 천주교, 불교였다. 결혼이민여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자 이외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연구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촌 결혼이민여성 가족 지원 사업’의 경기도 이천시 지역 교육도우미로 활동하면서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5개월간 주 3회, 총 60회 이상 돕는 과정에서 이들의 생활, 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와 그 의미를 탐색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경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 각종 보고서, 논

문, 방송매체, 인터넷과 신문 등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고,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심층면접, 집단면접, 경험에 관한 글쓰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쓴 글을 연구자가 번역하거나 번역을 의뢰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면접 과정에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반복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결혼이민여성 3명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주변 인물들도 연구의 참여자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였다.

결혼이민여성 3명과 이들의 가족 즉, 남편 3명, 시어머니 2명, 친정어머니 1명과 개인면담을 하고, 결혼이민여성 3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3차례 집단 면접을 진행하였다. 집단면접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양상과 대인관계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천지역 결혼이민여성들과의 전체 모임을 통해 연구 대상 이외의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추가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인적 사항,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 외에 국제결혼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드러내주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면접 질문지의 문항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결혼 생활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고, 어떤 점이 걱정스러웠나요?”, “신혼초기에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가족들이 **씨를 어떻게 대하나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한국생활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등이다. 첫 번째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유도된 대화(guided conversation) 형식으로 진행

하였고, 이후의 추가적인 면접에서는 첫 번째 면접을 통해 확인한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표현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활용한 방법은, 구체적인 일화를 중심으로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당시 상황에서의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가능하였다.

심층면접을 포함한 자료 수집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접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면접은 2-3회에 걸쳐 한 회기 당 2-3시간 정도로 계획하였으나, 연구자가 자주 만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집단면접 2회를 포함하여 계획보다 여러 차례의 면접을 하였고 배우자와 가족들의 경우는 1-2회 면접을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진행한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뒤 전체 자료를 필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총 9명의 연구 참여자와 최소 1회, 최대 10회, 전체 40시간 이상 면접한 것을 전사한 자료는 A4 용지 150쪽 분량이었다. 매 면담 직후 곧바로 중요한 일화와 핵심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메모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면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고, 교육 시간 중에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나 장면에 대해서는 방문일지에 기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방문일지는 중요한 관찰에 대해 교육이 끝난 즉시 기억 내용들을 컴퓨터에 기록하는 형식

으로 작성하였으며 A4 용지 43쪽 분량이었다.

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정리 작업을 실행하였다.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 역시 주제별로 조직된 모든 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문일지나 간략한 기록 등에 출현하는 주제와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것까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면접 자료, 방문일지, 연구 참여자들의 글, 일상 대화중에 언급된 중요한 일화나 그에 대한 참여자의 감정 표현,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과 연구자의 느낌 등 모든 자료는 글로 옮겨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내용별 혹은 주제별로 분류해 컴퓨터 폴더에 저장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범주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 자료들을 일괄 출력하여 연구 참여자 각각의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연구 초기 단계의 기준은 결혼 전 만남, 결혼 준비 과정, 신혼 초, 자녀 양육문제와 현재, 미래 계획 등 시기에 따른 경험과 반응이었고, 연구자는 시기별로 배열한 참여자들의 행위 및 특징에 대해 직접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중기에는 앞서 수집한 자료와 연구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각 가정의 핵심적인 갈등이나 결정적인 일화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경험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연구목적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주

제 영역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 후기에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 경험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 남편과 가족들의 반응 영역에서의 특성을 범주화하고 그 결과를 사례별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부부의 국제결혼 동기와 결혼 전 기대, 결혼이민여성 각자가 지각한 적응과정의 스트레스 요인, 그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반응, 가족들의 반응 등의 주제영역에 따라 정리하여 사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와 사건, 갈등에 비중을 두어 왔던 선행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상세한 묘사(thick description)를 병행하여 적응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구성원 검토(member-checking),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등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담, 방문일지, 다른 교육도우미들의 방문일지와 후기, 참여자의 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연구와 각종 보도자료 분석 등 자료의 원천을 다양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 부족과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어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미 전달이 불확실할 경우 연구자가 한국어로 재진술하여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밖에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 결혼이민여성과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 대조하는, 참여자에 의한 내용 확인과 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 대조를 통해 핵심적인 에피소드나

갈등 상황에서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정정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하는 전 과정에 걸쳐 다문화가정 지원 실무자, 다문화교육 전문가, 문화인류학자, 상담전문가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요청함으로써 연구자의 성향이나 선입견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결과인, 사례별 다문화가정 부부의 국제결혼 동기와 결혼 전 기대, 결혼이민여성 각자가 지각한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 및 적응전략, 가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결혼의 동기와 기대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개인적인 경험 및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실적인 타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조선족-한국인 다문화가정 현중이네의 경우, 워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본국에서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삶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아내와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남편이 서로의 조건에 맞는, “농촌에 살기는 하지만 착하고 온전한 남자”,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흠이 없으니를 모시고 살아줄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였다. 현중엄마는 맘머느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염려하기에 앞서 손윗사람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한국인 다문화가정 인영이네의 경우, 피부도 하얗고 멋진 한국인과 새로운 환경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었던 아내와 배우자가 필요했던 남편이 “인연”을 만나 첫 눈에 반하면서 친정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결혼을 하였다. 베트남인-한국인 다문화가정 남주네는, 대입 실패와 실연 후 충동적으로 국제결혼을 결심한 아내와 도망간 형수님의 영향으로 젊고 매력적인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된 남편에게 친지가 권유하면서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였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요건의 타협,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적인 시도, 현실도피의 수단, 젊고 매력적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외부적인 요구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판단과 결정에 입각하여 결혼이민을 선택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은 외부적인 요구와 강요이기에 앞서 내부적인 판단과 결정에 입각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세 가정의 부부와 가족 모두 각자의 결혼 동기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공유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적응과정의 스트레스 요인

결혼이민여성이 지각하는 적응상의 문제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만족스러운 정체감과 위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로, 관계 설정에서의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중엄마는 맏며느리, 큰형님으로 존중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적응 초기부터 시댁 가족들로부터 기본적인 배려와 한 가족으로서 인간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데 실망하였고,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중국인인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느꼈다. 반면 며느리에게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던 현중이 할머니는 한국인인 작은 며느리와는 달리고 분고분할 줄 모르는 건방진 큰며느리 때문에 화목하던 집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현중엄마의 문제는 가족들로부터 애정과 인정 욕구가 좌절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돈 하구 한국 돈이 틀리니까, 하나 높고 하나 얇고 그러잖아요. 한국 돈 생긴 거는 알아도 이런 물건에는 가격이 어떤가 읽을 줄 모르니까, 시어머니해구 나가서 장 구경두 시키구 돈에 대해서두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거이 안되니까 실망이 많이 됐지.(현중엄마)

서방님두 채두 뭐 시어머니도 보다시피 제 아들이 형수님을, 형수님 부르지도 않구 인사두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칼로 죽인다니 뭐 어쩐다니 그럴 때 시어머니가 애들을 나란히 앉아 가지구 무슨 문젠가고 잘 듣구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해 줘야되겠다 그런 걸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데 그거이 아니고. - 한숨 - (현중엄마)

인영엄마는 부부의 노후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염려 등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컸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인영이가 성장한 후에 엄마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지, 남편이 싫어하지 않을지, 시댁 가족들과 문제가 생겨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인영엄마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여기에서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인영엄마의 어려움은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욕구와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자기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 어려워요. 여기서 나가야되면 진짜 걱정요. 여기 나가면 집도 없구 아무 거 없구. 지금은 겁내고 걱정하고... 인영아 빠 나이 많아서 취직도 어려워. 그 일로 올면 인영아빠 싫대요.(인영엄마)

나중에 엄마가 한국말 모르면 애기 엄마랑 안 놀아요. 동네 아줌마도 애기 그렇게 나두 생각 그렇게구. 나중에 인영이 진짜 싫대면 어떡해요.(인영엄마)

본국에서의 실패를 행복한 결혼생활로 만회하고 싶었던 남주엄마는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생활환경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분가하기 전 술만

마셨다 하면 남주네가 함께 사는 것을 불평하던 시아주버니의 술주정과 버릇없는 조카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아들만 감싸는 시부모님께 크게 실망하였다. 기대할 것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줄 의지할만한 친구를 집 밖에서 찾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남주엄마는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 와 힘들었어요. 맨날 집에만 혼자 있구 심심했구 뭐... 원래 저 시어머니랑 조금 안 맞아요. 싸웠다 아니라 뭐 시어머니 음식 뭐 뭐 다 저 안 맞어요. 모 아주버님두 술 먹어 맨날 소리 질르구. 그 때 베트남 가고 싶었어요. 한국 안 좋아요.(남주엄마)

남주 아직 어려서 아직은 걱정 없구 계획 없는데, 엄마 아빠 다른 나라니까 조금 걱정이예요. TV에서 태국인가? 어디에 나와 한국말 잘 못해요. 그 애 또 피부 까매 친구들이 “너 한국사람 아니다.” 놀렸어요.(남주엄마)

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반응

주로 관계 설정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적응과정의 문제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반응양식은 저항하는 경우, 수용하는 경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등으로 달랐지만, 저마다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현중엄마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과 가족들과의 관계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할 말은

하기’로 했던 시도가 좌절되면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시어머니를 배제시킨 ‘우리 가족’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는 강한 분리를 드러내며 불일치감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교회의 외국인모임에 참여하며 관계망을 구축하고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한국 사회로의 편입을 위해 발 빠르게 동화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맨 처음에 막상 와가 시어머니로써 집안 안에 큰 어르신이 이렇게 두 매느리를 맞이해구 사람 차별을, 나라 차별을 하잖아요? 작은 며느리하구는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구 뭐 농담두 치구, 지가 좀 뭐 어땡구 하면 성질내구 헬업 올라간다느니 뭐 어쩐다니 글구...(현중엄마)

내가 와서 있으며 보니까, 자꾸 저네 서이만 어울리구... 어디 잔칫집에 가든가 무슨 행사엘 가두 시누에 차 있잖아. 거기다 저네 엄마에 그, 둘째 매느리있잖아 고래 고래 한 웅크리져서 갈라 글구. 자는 언제나 빠치우구 신랑이 델꾸 가게 하구 뭐...(현중이 외할머니)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동서가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면은 어머니 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하면은 대든다구 그러구.(현중엄마)

같이 주구 받구 하면 또 와~악 해구, 큰 싸움이 되구... 그래서 안 좋지 뭐. 아, 인제는 상대하기두 싫구. 애네 할머니하구는 애길 못하졌어. 서루 제 맞다구 하니...(현중엄마)

고모님 두분한테 맨침에 전화로 오면은 어, 매느리 잘해요? 어때요? 하면은 그저, 어~ 시어머니한테 대들구 뭐 어찌구 하드라구. 그러잖아. 뭐 고모님은 뭐 아세요?(현중엄마)

남편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신혼 초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인영엄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적응 초기에 경제관념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이를 가르치려 했던 시댁 가족들의 태도에 ‘눈치 살피기’와 ‘묵묵히 역할 수행하기’로 반응하면서 가족들의 우려가 불필요한 걱정이었음을 증명하였고, 큰댁이 아닌 인영이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천주교로 개종한 것처럼 가족들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며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있었다. 인영엄마가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자기를 버림으로써 무조건 맞추는 역기능적 추종이 아닌 이유는 본인의 기대와 바람 자체가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여유로운 생각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영엄마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인 힌두 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석에 준비할 거 많은데 무슨 부침하고 그러는데 형님하고 동서 왔는데 나는 그냥 저기 쉿피하고 말도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못해요. 이거 뭐예요 자꾸 물어봐면 창피하고 계속 물어보기만 해야

돼서 기분도 안 좋구 가슴도 답답했어요. (인영엄마)

생활비 물어보고 한 달에 왜 50만원 잔소리. 옛날에 △△가면 맨날 눈물 줄줄 흘렸어. 그렇게 들으면 마음도 아프구 내가 와서 한 달에 돈 많이 쓰구나 울었어요. 그래서 인영아빠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아니야. 지금은 먹고 싶으면 다 먹어. 안 먹으면 어지러워.” 이렇게요. 임신했을 때 고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식구들이 고기랑 과일 너무 비싸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식구들 애긴데요 “과일 많이 먹어 피부두 좋구 건강해.”(인영엄마)

인영이 약간 까매잖아요. 피부 약간 째째해요. 식구들 “안 까매” 얘기요. 인영이 까매면 걱정돼. 친구 없어 어떡해. 지금도 걱정 있어요. 또 생각 인영이 까매면 그냥 인도네시아 데리고 갈까? TV에서 봤었는데 필리핀 애들인데요 친구가 “아프리카 사람?” 애들이 울어. 친구한테 섭섭해받구 계속 울어. 지금 나는 생각, 왜 나는 국제결혼 해... 나중에 인영이 커서 상처 받아 피부도 까매구 한국말도 못해구 어떡해. 걱정돼요.(인영엄마)

그 전에 진짜 스트레스 받구 술 조금 마셨어. 나무 밑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인영아빠 다 왔다갔다 찾구. 그때 인영아빠 누나랑 싸웠는데 나는 답답해잖아요. 나는 짜증 받구 당신 약속면 식구들 잘하면 나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싸우면 진짜 싫어요.(인영엄마)

전에 필리핀 사람 물어봤는데요, “애기 안 물어봐? 왜 아빠 외국사람 결혼했어?” “어, 아빠 나이도 많구 여자 없구 필리핀 가서 결혼했어.” 이렇게요. “엄마 안 미워했어?” “괜찮어. 천천히 얘기해주면 돼.” 그 전에 많이 걱정돼... 애기 듣구 가슴이 시원해.(인영엄마)

남주엄마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로 이사할 것을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다. 남주엄마에게 이사는 단순히 더 나은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의미 이상으로, 시댁 가족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분가 전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며,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 같은 유일한 희망으로 볼 수 있다. 남주엄마는 실패로 인한 좌절과 불투명한 미래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던 만큼 결혼 후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불평하며 신세한탄을 해왔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과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압하고 있었다. 출산 전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몇몇 사람과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남주엄마에게 유일한 긍정적 경험으로, 재취업을 통해 자존감을 확인하고 삶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맨날 집에 심심 죽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자꾸 답답해구... 여기 살다가 금방 죽을 거 같아요. 너무 심심해구 외롭구... 그냥 갈 데가 없어요. 베트남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얘기할 사

람도 없어.(남주엄마)

아주버님, 조카들 때문에 답답해요. 자기 돈 벌어 자기 알아서 사먹어야지. 맨날 맛있다 먹었다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어요. 술만 마시면 욱하구 “아직도 안 나갔냐”고 냉장고 열어 우리가 먹을 걸 다 먹었다고 소리두 질르구.(남주엄마)

뭐든지 다 베트남 엄마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걱정하면 안 되구. -음- 얘기 못했어요. 그 때 베트남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베트남 가고... 한번 결혼했잖아요. 여잔데 신랑 뺏두고 와구 혼잔데 또 동네사람들 막 물어보면 또 엄마 아빠 힘들어구.(남주엄마)

남주아빠랑 싸울 때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막 화나 아무거나 말해. 어휴 생각 없네...’ 하면서 나중에 후회해요. 저 말 이렇게, “자기 가족 왜 이렇게 징그러우냐고.” 말도 하구. 남주아빠 아무 말 안해구. 나중에 저 그냥 ‘미안해.’ 생각만 했어요.(남주엄마)

빨리 나가면 좋겠다 둘이만 살으구. 자기 집에 자기 맘에 들어해구 뭐 사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맘대루 해구.(남주엄마)

적응과정에서의 가족들의 반응

결혼이민여성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형태였으며, 인영이네

를 제외하고는 적응을 아내가 감당해야할 몫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상 한국 문화와 가족 생활방식에 맞춰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부적응이 가시적인 문제로 표출되지 않는 이상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배우자나 며느리의 기대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들이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생활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현중아빠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가족 갈등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중엄마는 이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는 회피할라고 하죠. 원래 회피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내가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점점 더 꼴이 깊어지는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그냥 일단 지켜보고...(현중아빠)

아유~ 그냥 제쳐 놓고 살라 그래요. 그냥 너는 그렇다, 나는 이렇다 이러구 무시해구 살구. 인자 정 저기해면 야단치구. 말대꾸해면 또 언성이 크게 나오겠지. 아이~ 들어먹어야... 것두 내가 나쁘다구 그러겠지.(현중이 할머니)

아내의 적응을 돕는 해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영아빠의 경우 좀 더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였다. 아

내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노력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언어화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시도로 대체하기를 기대하는 인영아빠의 반응이 압력으로 느껴져 인영엄마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남편의 도움 덕분에 든든해하기도 하였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식들두 그렇구. 엄청 중요해죠. 살다보니까 그런 계통의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근까 어떻게 됐든 대화는 나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말을 못해니까 나는 바보가 되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근까 외톨되게 그냥 집에만 쳐박혀 있으면 힘들구, 자꾸 만나구 해야죠.(인영아빠)

나는 여기 집에만 혼자 친구두 없구 그렇게 말 들으면 슬프구. 인영아빠 울구 하구 다 알아. “린다 나는 어떡하면 좋아... 저녁에 시간 있으면 가자.” 그렇게요. 외출하자. 아, 우리 신랑 나 이렇게 섭섭해 받구 스트레스 받는 거 아는구나. 고맙구. 좋구.(인영엄마)

남주아빠는 심심하다는 아내의 불평과 짜증을 받아주면서 구슬리기도 하고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아내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남주아빠가 아내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서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화를 내도 다 받아주는 등 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남주

표 1.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전략

| | 부부의 결혼동기와 기대 | |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 스트레스에 대한 아내의 반응 | | | 적응과정에서의 가족들의 반응 |
|------------------|---|-----------------------------------|--|------------------------------------|--|--------------------------------------|--|
| | 아내의 동기 | 남편의 동기 | | 인지적 반응 | 정서적 반응 | 행동적 반응 | |
| 현 중 이 내 | 관계문제 | | | | | | |
| | 더 나은 삶/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 | 현실적인 대안 | 고부간의 갈등/ 시댁 가족과의 관계/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 | 무시와 차별에 대한 확신 | 배려 부족과 따돌림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 할 말은 하기/ 상호작용의 최소화/ 불평하기 | 행동적 반응 회피하기/ 제쳐놓기 인정하기 |
| 인 영 이 내 | 미래에 대한 불안 | | | | | | |
| | 안정환 치럼 멋진 남성/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 | 현실적인 대안/ 인연 | 남편과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 아내, 엄마로서 역할수행에 대한 염려 | 나의 부족함/ 남편의 경솔함 | 역할모델이 없는 데 대한 불안/ 후회와 자책하기 | 수습하기와 수용하기/ 조언과 지지 구하기 | 주도적으로 행동적 반응 관심 기울이기와 배려하기 |
| 남 주 내 | 사회적 고립감 | | | | | | |
| | 친척의 권유/ 현실 도피 | 젊고 매력적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호감 | 선택에 대한 후회/ 시댁 가족과의 관계/ 엄마로서 역할수행에 대한 염려 | 환경의 열악함/ 시댁 식구들의 비상식적임 | 감정 억압하기 | 불평하기와 짜증내기/ 남편에게 요구하기 | 구슬리기와 요구 행동적 반응 들어주기/ 관계형성 돕기와 재취업 유보시키기 인정하기 |

엄마의 ‘참고 살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남주 할머니는 “아이 낳고 곧 잘 사는” 며느리를 대견해 하면서도 속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 적응과정에서 남편

들의 반응양식과 지원 정도는 각기 달랐지만, 아내가 경험하는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 남편 세 사람 모두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남주엄마 심심한 거는 이해를 해. 아 니, 근데 심심하면 동네 아줌마두 있구 형수들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가라 그는데 안 가요. 이천 나가구 싶으면 저 혼자 나 갔다 와두 되는데 또 남주 때문에 힘들 어서 안 나간다 그래구. 그래구는 심심한 그 투정을 나한테 해.(남주아빠)

애기만 하나나 둘만 더 나면 최고야. 다른 건 바랄 것두 없구 인제 그래요. 말 은 착해다 착해다 안 해. 그냥 속으루 '착해다.'(남주 할머니)

논 의

결혼이민여성들 스스로가 결혼이민을 결심 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다차원 적인 관점의 적용 가능 여부와 그들의 적응경 험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하였다.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 로 설명될 수 있는 단면적 차원의 동기 이외 에 개별적인 동기를 확인하고, 친정에 대한 원조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을 전제 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주체로서 의 결혼이민여성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 가족 내· 외부 체계와의 관계 등 적응 경험과 적응 전 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드러 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결혼이민여성의 모습 을 다루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결혼 이민여성들의 적응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 하였다.

첫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터전에서 '신기성'을 경험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경제적인 동기가 강조됨에 따라 인식 되지 못했던 이러한 욕구와 기대 역시 조망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개별적인 경험 과 다면적인 동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새 로운 시각은 경제적 빈곤의 해결수단이자 생 존전략으로 파악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을 피 해자화 하였던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장 기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성과 변화는 경제 적인 동기와 더불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한 강력한 요인이면서 적응과정을 통해 어려움으 로 확인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 기를 살펴본 결과, 한 집안의 뒷사람으로 인 정받으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현중엄 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살고자 했던 인영엄마, 대학입시에서의 실패 와 실연 때문에 국제결혼을 충동적으로 감행 한 남주엄마의 개인적인 경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기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 중엄마의 기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존 재가 되고 싶었던 시도로, 인영엄마의 결심은 더 재밌고 근사한 생활을 위한 도전으로, 남 주엄마의 선택은 실패자로 남고 싶지 않았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민여성들의 결혼 동기가 상승혼(hypergamy) 이라는 결혼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일반 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모험적 차원이 포함된 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Constable(2003)은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배경이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상승 혼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결혼은 각자의 조건에 맞는 대안이었고, 본국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에 따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자신의 출신국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의미 그 이상으로, 결혼생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누릴 수 있고,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조건과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목적의 일원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지닌 능동적인 선택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들을 경제적인 희생양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반응과 태도,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왜곡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용적인 다문화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스스로의 여러 가지 기대와 요구가 결합된 선택이었던 만큼, 각자가 결혼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가족에게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서로의 기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가운데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상담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후의 생활이 만족스러울지 그렇지 못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기대와 희망에 집중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의무나 위험부담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정 외(2006)도 결혼이민여성들의 행위 동기를 파악한 결과, 한국에서의 앞날이 고국에서와는 달리 뻔하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친정은 물론 시댁 가족의 기대와 희망, 지극히 복합적으로 구성된 결혼 동기, 불투명하고 애매한 미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결혼의 선택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담론화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선택의 주체라는 점과, 본인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해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정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동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인으로, 부부갈등의 주요 요인(윤형숙, 2004;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은 사회적인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희생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불편감을 나타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여건과 친정의 필요에 따라 남편의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정도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이민여성들은 이 문제와 별개로 삶의 주체로 수용되길 희망하였고, 국제결혼을 억압과 학대의 상징으로 보고 본인들을 그 과정의 희생자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길

원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적·정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바람과 노력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같은 만족스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내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외적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결혼이민여성 이 가족생활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유문화를 간직하는 문화적응(enculturation)²⁾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주변 환경 및 사람들과의 다양한 교류와 심리적 경험을 통해 서로 다름을 조율해가는, 상호변화의 과정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는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규준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를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적인 농촌지역의 경우 위계적인 가족 구조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자녀출산과 시부모님 공양, 가사노동의 임무가 부과된다. 억압적인 사회적 규준이나 가족문화, 가족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식에 따라 반응양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2) 문화적응(enculturation)은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고유한 문화적 규범을 간직하면서 새롭게 사회화되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구성개념으로, 문화순응(acclimation)이 주류 집단의 규범에의 적응(adapting) 과정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개념과 구별된다(Kim, 2007).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의 태도에 크게 상처 받고 실망한 현중엄마와 남주엄마는 시어머니 중심의 모계가족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축이 되는 ‘우리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가족 간의 갈등 없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영엄마는 자신을 억누르고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느리가 시댁 문화에 따라야 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시어머니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순종적이지 않은 결혼이민여성의 태도에 일반적인 한국 며느리와의 차이를 느끼면서 당황하거나 분개하기도 하였다. 며느리가 가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이를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지적과 요구를 계속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기대와 바람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아내가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문화, 시댁문화에 잘 적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와 사회적·도덕적 압력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여 존재가치와 자존감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엄마로서의 지위는 결혼이민여성의 적응과정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돈을 벌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혹은 억압적인 가정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자녀를 보살피는 문제 때문에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처럼 자녀양육 및 교육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이들의 일상을 가정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하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삶의 목적이자 의미였고, 고유 영역인 엄마역할을 통해 인정받으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었다. 한편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과 교육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녀와의 관계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 남성 배우자나 시댁 가족들은 ‘결혼’을 일상적 가정생활과 가족체계의 유지 차원으로 이해하는 반면, 결혼이민여성들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려와 돌봄의 경계에 시댁 가족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개인에 따라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가족체계 안에서의 존재감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현실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들의 심리적 경험과 적응전략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환경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심리적 정서적 자원의 발견과 강화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가족들의 방임적인 태도와 위계적인 가족구조에서의 불합리한 관계 및 부당한 대우 등 관계의 문제, 상호경험의 확대라는 인식의 부재, 아내나 엄마로서 안정적인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자신들에 대

한 부정적인 사전 정보, 가정에서의 제한적인 역할과 자유 재량권 부족으로 밝혀졌다. 현중이네의 경우 조선족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조선족 며느리를 맞이한 한국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부정적인 사전 정보와 편견이 실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영엄마의 경우 역할 수행에 대한 염려와 자신감 부족이 양육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남주엄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다문화상담자는 신뢰롭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존감 향상을 돕는 한편,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가족갈등 완화와 위기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 배우자·엄마 역할에 대한 교육이나 긍정적 자원 확인을 통한 자기 효능감 증진, 과거에 대한 미련을 극복하고 현재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삶의 의지로 대체하기 등의 상담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역기능적인 사고, 미해결 과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인 다문화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제도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또한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적응 과업을 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노력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근본적인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

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댁 가족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거나 인간적인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혼이민 여성으로 하여금 방어적이 되도록 만들고 점차 심리적으로 철회하도록 하였다.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것은 의사소통의 방법과 형식에 앞서 심리적인 철회이며, 이는 상당부분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방법 또는 인간적인 배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두기는 결혼이민여성만의 대응방식은 아니었다. 시댁 식구나 시어머니의 경우, 며느리가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시댁 문화에 맞추면서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일반적인 한국 며느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생활양식과 언어 등을 포함해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해와 갈등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응초기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함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가능한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주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상호배려와 인간적인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의사소통에 앞서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언어구사능력 증진 못지않게 정서적 교류와 공감, 상호존중이 가능한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지지적 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에의

의지와 희망, 사회적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와 시도, 개인 내적자원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사례 가운데 시댁 가족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받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남편을 가장 큰 지원자로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알아차림’과 ‘함께 있어주기’가 아내의 적응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 남편 이외에 가족 내 심리적 지지 제공자가 없는 경우,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지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결혼이민여성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와 이들로부터 이해받았던 경험은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였고 적응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능력에 존경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자원으로 확인시켜주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이 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관계 맺기를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였던, 관계 문제에서의 통찰을 얻게 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연구자에게 인정받은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생애 의미와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자신을 삶의 주체로 보면서 자기실현의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신혼 초기에 겪었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단절감, 고립감이었고 그 기저에는 혼란과 공허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지금껏 살아온 터전을 떠나 생활양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실감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상실감

과 소외감이었다. 따라서 상담자나 가족들이 적응에 따른 혼란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공허와 소외감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민여성들은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을 통해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며, 가능하면 취업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이들에게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자기수입, 자기개발, 외로움과 가족 갈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통로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역할설정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 대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지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동시에 방법과 과정, 어려움 등을 공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기 시작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도 장기적인 정착과 사회편입의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참여 통로는 이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조모임(self-help group) 구성 및 운영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자조집단을 통한 경험의 공유 및 지지적 관계망의 구축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이고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면적인 욕구와 기대, 현실적인 상황이 결합된 국제결혼 동기와 경제적 보상 혹은 지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선택의 주체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통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실제 적응과정에서 밝힘으로써 적극적 참여자의 특성과 이들의 '실현경향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상의 문제는 의사소통, 식습관 및 기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과 혈연 중심인 한국의 완고한 전통문화에 있었다. 이 같은 연구의 발견을 토대로, 이들에게 한국문화의 학습 혹은 가족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그 가족들의 문화적 가치관의 전환 및 다문화 가족상담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과 장기적인 정착, 삶의 질을 위해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배려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강조됨에 따라 간과되었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서구문화 중심의 상담이론 및 접근과는 달리, 우리 문화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발견 탐색한 귀납적 연구이며, 상담연구 및 실제에서 패러다임 전환

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능동적 선택의 주체이자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은 이들이 다문화시대 인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정책은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현미(2006)는 한국 사회가 한국에 들어온 외국여성들을 가부장적 훈육체제를 바탕으로 ‘한국식’으로 적응, 개조시키려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모국과 한국 사이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이므로 이들과 그 자녀들이 향후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적·경제적 자원을 확장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정책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문화교육, 예방적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대상 역시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부, 시부모, 그 밖에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반인들까지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 농촌에 해당되고 사례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다양한 결혼 상태에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경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의 참여자인 결혼이민여성 3명은 모두 한국에 입국한지 3-4년이 된 사례로,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아 적응초기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단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적응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과정 모델이나 이론형성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3명의 적응상의 어려움,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 적응전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확보하거나 양적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잠재력과 취약성 등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 내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여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이들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 근거한 연구는 사회적인 인식 및 선입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정보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 우려도 있으므로 연구자의 균형 잡힌 시각과 윤리적인 고려가 대단히 중요하다. 결혼이민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잠재적인 문제아 혹은 부적응자가 아닌, 자아 실현 경향성을 지닌 충분히 기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명되어야 하며 지원의 내용과 형식 역시 이들의 다문화정체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안전감과 자신감을 제공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성혜 (2007).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농림부 농촌 결혼이민여성 가족 지원 사업 자료집, 121-125.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인희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성 고찰. 다문화시대의 아동권리와 상호이해 증진: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다문화전문가 포럼 자료집, 9-28.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경희,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신란희 (2005). 국제결혼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승민 (2007).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 조선족 결혼 이민여성들과 가족들의 갈등과 적응. 미래교육연구, 20(1), 1-32.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왕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321-349.
- 이현선(2007). 농촌 이주여성의 이해. 농림부 농촌 결혼이민여성 가족 지원 사업 자료집, 126-144.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 73-106.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장수지, 조을순, 정주희, 윤지은, 박보미 (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rettell, C. B. (2000). Theorizing migration in anthropology. In C. B. Brettell & J. F.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New York: Routledge, 97-135.
- Constable, N.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Pen pals, virtual ethnography, and "mail order" marri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nstable, N.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di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reeman, C. (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The paradoxes of marital mobility for Chosonjok brides in South Korea. In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di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80-100.
- Gomm, R., Hammersley, M., & Foster, P. (2000). *Case study method: Key issues, key texts*. Thousand Oaks, London: Sage.
- Kanaiaupuni, S. M.(2000). Reframing the migration question: An analysis of men, women and gender in Mexico. *Social Forces*, 78(4), 1311-1348.
- Kelsky, K. (2001). *Women on the verge*. NC: Duke University Press.
- Kim, S. K. B. (2007). Adherence to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74-480.
- Lan, P. C. (2003).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al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525-549.
- Lewellen, T. C. (2002).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onnecticut: Bergin and Garvey.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허미화 역 (1994). 질적 사례연구법: 교육학에서의. 서울: 양서원.
- Piper, N., & M. Roce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Samonte, E. (1992).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mechanisms among Filipinas in West Germany and Holland. *Philippine Journal of Psychology*, 25(1), 20-39.
- Simons, L. A. (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 Yeoh, B. S. A., & Huang, S. (1998). Negotiating public space: Strategies and styles of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Urban Studies*, 35(3), 583-602.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신경식, 서아영 공역 (2005).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원 고 접 수 일 : 2009. 7.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9. 9. 25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A Study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Seung Min Yang

Yonsei University

Moon Hee Yon

Sungsan Hyo Graduate School of Korea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es of adaptation foreign wives experience and how they are dealing with the major issues in a multicultural family setting. I approach the issues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y, interviewing nine participa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s for the couples to choose international marriage were not only economic needs but also personal experiences as well as various desires. Second, these women's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enculturation arose from the tension of the relationship. Third, there were remarkable contrasts between their stress responses. Forth, in-laws were for the most part not very helpful in overcoming the marriage difficulties migrant women face. Fifth, risk and positive factors of their adaptation proces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multicultural family, enculturative stressor, stress response, qualitative case study